

News

은행 주주,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내년부터 은행 주주는 주식 보유비율이 바뀌어도 '향후 추가 보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돼... 또한 앞으로 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나 대학교 주거래은행에 선정되고 내야 할 출연금이 확정되면 바로 공시해야...

신한금융, 네오플렉스 완전자회사로 만든다... "소액주주 지분 인수"

뉴스1

신한금융지주가 네오플렉스를 완전 자회사(지분율 100%)로 편입... 신한금융은 주식교환을 통해 네오플렉스 소액주주가 보유한 3.23%의 나머지 주식을 모두 확보... 신한금융은 네오플렉스의 100% 자회사 전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증가효과를 기대...

금융위, 하나금융 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심사 보류

머니S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이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에서 보류...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보류 원인...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계속 운영 가능... 허가심사는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재기...

신한銀, CJ·LGU+와 마이데이터 '동행'

서울경제

금융권은 '데이터 동행' 확보전에 한창... 금융사들은 통신·유통 등 다양한 업종과 합종연횡에 나서... 신한은행은 CJ올리브네트웍스·LG유플러스와 '마이데이터 공동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예정...

무·저해지환금금 보험, 높은 환급률로 판매 못한다

아시아경제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된 무·저해지환금금 보험의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 이내로 제한...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설계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 "개정안에 따른 상품 설계 시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져 보장 목적의 소비자 혜택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시 웃는데... 변액보험은 '울상'

한국경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V'자 반등한 주식시장에 많은 돈이 몰려들었지만 변액보험 시장은 오히려 위축... "변액보험의 수수료와 상품 구조가 소비자 친화적이지 못하기 때문"

공모주 개인물량 최대 30%로... 일반청약 절반은 똑같이 배분

파이낸셜뉴스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 물량이 기존 20%에서 30%까지 늘어나...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5%가 배정...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물량 감축분 5%도 추가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가 대상...

'토스증권' 탄생... 2030 노린 맞춤형 증권사가 온다

세계일보

금융위는 토스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안을 의결... 토스준비법인의 이름을 이달 중 '토스증권'으로 바꿔 내년 초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 토스증권은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모바일 증권사를 표방... 국내 주식 증개를 시작으로 해외주식 증개, 펀드 판매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방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